

‘지속 가능한 섬 발전’ 주민이 주도한다

섬진흥원 발전 우수사례 발표대회 7개 지자체 10개팀 성공 사례 공유 공동체활성화·일자리·소득 기여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으로 지방소멸의 초시계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21년 10월 출범한 한국섬진흥원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 섬 발전에 나서 성공한 사례를 공유하며 확산시키기로 했다.

한국섬진흥원(KIDI)은 지난 12일 ‘제3회 섬의 날’을 기념해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 2층 회의실에서 ‘주민주도 섬 발전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주민들이 직접 주도한 섬 마을 공동체 활성화 우수사례가 널리 공유됨으로써 국내 섬 주민의 사기를 도모하고 섬 지역의 일자리, 인구 증가, 소득증대까지 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전국의 7개 기초지자체(신안 4개팀, 군산·통영·거제·보령·울릉·고흥 각 1개팀)

총 10개팀이 발표했다. 신안 비금도 ‘수림마을 쉼터’ 박종덕 대표의 ‘박 쉼터의 비금섬 5년의 이야기’ 발표를 시작으로 ▲고흥 연흥도 ‘연흥도 협동조합’ 최완숙 대표의 ‘예술의 섬 연흥도’ ▲울릉도 ‘평리마을’ 김영남 대표가 ‘현포2리 다가치일터 사업 유치’라는 주제로 대회가 열렸다.

이어 ▲통영 두미도 ‘두미도 남구마을’ 김문기 대표 ‘두미도의 아침’ ▲군산 무녀도 ‘무녀마을’ 이기영 대표의 ‘무녀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의 발표 등이 이어졌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박종덕(신안 비금도) 대표는 “섬 마을에서 5년간 장애인 이동봉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본인의 소개하면서 “섬 주민들에게 특이하 취약한 미용과 문화 등을 채워줌으로써 평범한 하루가 아닌 ‘크리스마스 같은 특별한 날’을 선물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기영(군산 무녀도) 대표는 “무녀도를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야 할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면서 “그 결과, 주민 스스로 오토캠핑장을 운영

하고 로컬푸드점 준공을 통해 어업생산물 판로확장 및 6차 산업 활성화 도모가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오동호 한국섬진흥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섬 발전’을 위해서는 섬 주민들의 적극적인 자세와 참여는 필수”라면서 “오늘 발표자 분들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한 훌륭한 분들이다”고 말했다.

이어 오 원장은 “앞으로도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일자리, 소득사업 등을 통해 우리의 섬을 더 아름다운 섬으로 발전시켜 나가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4건이 우수사례(대상 1건, 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로 선정된다. 대상(장광상, 100만원), 최우수상(전북도지사상, 70만원), 우수상(군산시장, 한국섬진흥원장상, 50만원)에게 표창과 함께 포상금이 주어질 예정이다. 한편 섬의 날(8월 8일)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가 8월 8일부터 14일까지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와 고군산군도 일원에서 열렸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매월 둘째·넷째주 금요일은 착한가격업소 이용 하세요”

전직원 동참·도민 참여 적극 유도

전남도가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해 지속된 고물가 상황에서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전남도는 매월 둘째·넷째주 금요일을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로 지정하고 공직자들부터 적극 동참에 앞장서기로 했다. 실제로 지난 12일 문금주 행정부지사가 남구 내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점심식사를 함께 하면서 도청 공무원의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적극 독려했고 나섰다. **〈사진〉**

현재 전남에는 총 368개의 착한가격업소가 지정됐다. 착한가격업소로 인정받기 위해선 저렴한 가격과 정결, 좋은 서비스 제공 등 소비자가 만족할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현지실사 및 평가를 거쳐 시장·군수가 지정한다.

시·군별 착한가격업소 현황은 도, 시·군 및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누리집(goodprice.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금주 행정부지사는 “국채 곡물, 원유, 원자재 등 글로벌 수급 불안정이 지속돼 물가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

는 착한가격업소에 감사를 드린다”며 “도민들도 착한가격업소 이용에 적극 동참해 지방물가 안정과 지역경제에 활성화에 힘을 보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도민 무료법률상담 이용 크게 증가

7월말 상담 건수 지난해 넘어서

상담실·상담관 추가 위촉 지원

전남도가 실시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 도민의 수가 올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년간 315건에 그친 무료법률상담 건수가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524건을 넘어섰다.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법률상담을 원하는 도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를 대폭 강화하면서 도민들이 쉽게 무료법률상담에 나서고 있다. 읍·면·동사무소, 각종 복지센터, 시·군 가족센터, 마을회관 등에 홍보 포스터를 게시했고, 도내 200세대 이상 아파트 654개 단지 33만여 세대에 관리사무소 안내방송과 홍보 포스터 등을 활용해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또 홍보 영상을 제작, 유튜브와 다양한 누리소통망 서비스를 통해

알렸다. 법률상담 수요 증가에 따라 8월 중 전남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15명을 상담관으로 추가 위촉할 계획이다. 앞으로 총 32명의 상담관이 법률문제 도움이 절실한 도민에게 양질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상담은 전화, 인터넷, 대면 방식으로 가능하다. 대면상담은 도청 1층 법률상담실에서 매주 월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이뤄진다. 신청인과 상담관(변호사) 간 1대 1로 진행되며, 상담 대표전화로 사전 예약하면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우럭조개·새조개 인공종자 30만 마리 방류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자원조성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이 전남도 이매패류 자원조성을 위해 자체 생산한 우럭조개와 새조개 인공종자 30만 마리를 자연서식지에 방류했다. **〈사진〉** 비부착성 이매패류의 경우 자연서식 개체의 채취에 의존해 생산되는데, 최근 어미 자원의 지속적인 남획 등으로 자원량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이 지난해 우럭조개와 가리맛조개 3~5mm 종자 60만 마리 방류를 시작으로 줄어든 연안 패류자원의 증강을 위해 지속적인

방류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올해는 종자 방류 효과 향상을 위해 우럭조개 1cm 치패 21만 마리를 여수시 돌산읍 금천·항대·평사지선에 방류했으며, 6만 마리는 여수시 화양면 수문지선에 추가 방류하고, 새조개 1cm 치패 3만 마리는 여수시 백야도지선에 방류할 계획이다. 박준택 전남해양수산과학원장은 “전남도의 고소득 이매패류 자원조성을 위해 지역특산 고부가가치 패류 종자생산 기술의 확보는 물론 방류 추진에도 발 벗고 나서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 80% 지원

8만9000t 규모 928억 투입

전남도가 최근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힘든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무기질비료 구입비 928억 원을 투입해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하기로 했다. 비료량으로 환산하면 18만9000t에 이른다.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으로 무기질비료 1t당 가격은 지난해 8월 평균판매 가격(61만4000원) 보다 95% 이상 급등한 120만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농업인들이 경영에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도는 올해 1월 1일 이후 구매한 사료 구입비를 소급 지원하고, 인상분의 80%를 국가와 도, 시·군, 농협이 각각 분담한다. 농업인은 20%만 부담하면 된다. 지난해 가격이 1만600원이었으나 올해 2

만6800원으로 오른 무기질비료(요소) 20kg 1포를 구매하면 1만2950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된 농업경영체 중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무기질비료를 사용해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이다. 농업경제지주와 비료생산업체 간 계약을 통해 농업경영체에 판매된 무기질비료의 경우, 농업인의 별도 신청 없이 지역농협을 통해 최근 3개년 무기질비료 구매량의 95% 이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작목 전환, 재배 면적 확대, 신규 진입 농업인(귀농, 장농 등), 농협 외 비료판매업체와 직거래 농업인 등은 농촌진흥청 표시비율을 기준으로 비료 사용량을 농협에서 산출해 추가 배정하게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 귀어학교 교육생 9월 2일까지 모집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이 귀어를 희망하는 미래 어업인들이 귀어 정책부터 다양한 수산업 기술까지 습득할 수 있는 제7기 전남 귀어학교 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귀어학교는 귀어 희망자들이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전문 기술교육이다. 신청대상은 만 65세 이하의 귀어 희망자로, 어촌에 거주하는 비어업인도 신청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오는 9월 2일까지며, 서류전형과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2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희망자는 전남해양수산과학원(<http://ofsi.jeonnam.go.kr/>), 귀어귀촌종합센터(<https://www.sealife.go.kr/>)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해양수산과학원 강간지원으로 접수하면 된다. 교육생으로 선발되면 오는 9월 26일부터 10월 28일까지 5주간 강진읍에 소재한 전남 귀어학교 생활관에서 숙식하며 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 수료자에게는 도내 교육장에서 진행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교육의 수수료 일부를 감면 혜택을 준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